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6월 30일(금)
(율력 윤 5월 7일)

Пятница

30 июня 2017 г.

№ 25(11674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크림에서 건강해진 사할린 학생들

지난 23일(금) 크림 야영장에서 휴식을 끝낸 학생 125명이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름휴양프로그램은 사할린주정부가 지원했다.

흑해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해진 사할린 학생들은 크림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크림에서 면연력이 높아진 학생 375명이 돌아온다. 올해는 주정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 교육,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수상하거나 우수함을 보인 학생들 총 500명이 크림에서 휴식했다.

(취재: 이에식기자)

남쿠릴, 사할린 · 일본 투자설명회 개최

지난 27일(화) <에토피파카>선으로 약 70명으로 구성된 일본대표단(단장 에이찌 하세가와 일본 총리의 전문 참사관)이 남쿠릴에 도착했다. 일본 대표단 중 32명은 공무원으로서 경제성, 무역산업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관계자, 토지, 제반시설구축, 물류, 관광교통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들, 일본 경제연구센터와 연합회 직원들로 이뤄졌고 이외에도 일본회사의 직원들, 민간단체 대표, 통역원, 외무성 직원, 의료진 등이 함께 했다.

일본대표단과 만남을 위해 같은 날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 드미트리 네스페로브와 알렉산드르 지트코브 주정부 부수상들과 무역통상부, 보건부 장관과 관광, 전기개발, 사할린 산업개발 단체의 관계장들로 구성된 사할린 집행기관의 대표자들이 함께 유즈노쿠릴스크를 방문했다. 이들은 차로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을 둘러보고 공식 면담을 가진 후 주지사의 일행과 일본 대표단은 유즈노쿠릴스크 예술단들의 환영 공연을 관람했다.

28일 일본 대표단의 전문가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사업과제 전개에 나섰다. 이들은 항구의 제반시설 구축을 비롯해 수산물가공공장 돌아보고 부두건설, 온천 일본전통 목욕탕을 포함한 리조트 공사, 관광시설 등에 관심을 가

졌다. 일본 대표단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해양생물 양식이다.

일본 대표단은 쿠나쉬르 디젤발전소도 찾고 주택 공사에 있어서도 양국의 기업들의 공동 투자로 건축할 수 있는 분야로 언급했다. 일본 에이찌 하세가와 참사관은 "러시아 측과 비즈니스 과제 대상을 면밀히 살펴 조사하고 더 많은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함께 방문한 대표단과 공감한 점은 쿠릴에서 전개될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쿠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즉 해외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곳 노동자들의 거주지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건축하여 확대해 가고 주민들의 수익은 증가하게 될 거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할 직항 교통인 항공이나 항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할린주지사는 네무로-남쿠릴간 연락선 개통을 제안하여 쿠릴과 일본 간 직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9일은 저녁에 사업전개로 이투루프 섬을 찾아 이 섬의 경제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30일은 일본-러시아 전문가들이 쉬코탄을 방문하여 이 곳에서 설명회를 끝으로 경제대표단의 방문은 마무리되었다.

(주정부 홍보자료에서)

사할린주, 2017년 1월-5월간 사회경제 발전 종결

사할린주 올해 첫 5개월간 사회경제발전 결과를 총계했다.

지역 식품생산량은 3233억 루블리(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3,9%)에 달했고 가스 채취량은 51억m³, 석탄 채굴량은 1,5배 증가한260만 톤에달했다.

수산물(생선과 해산물) 채취량은 30만 6700톤(96%), 수산물 가공은116,7%로 20만3900톤을 가공했다.

2017년 1-5월까지 상반기 농산물 생산량은 15억 루블리(99,2%)고 육류와 우유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사육 두수에 있어 소는 15,7%, 양돈은 32,8%와 양계는 28% 증가 했고 우유 한 곡에 평균 착유량도 19,3%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주택 12만4700m²를 운용,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8,6% 감소했다. 사할린주민들은 5만8200 m²의 주택을 건설, 2016년보다 19,9% 낮은 46,7%만 주택으로 운용되었다.

2017년 소비시장의 일반식품 거래는 2,6% 증가했지만 서비스 종목은 2,9%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3% 인상된 6만800루블리다. 1인당 가정 소득은 결산시기에 4만7700루블리(98%)로 나타났고 2017년 6월 1일 현재 등록된 실업율은 0,7%로 작년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사할린주정부 제공)

단신

주정부, 젊은 학자 연구에 80만루블리 지급

지난 2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에서 청년학자 연구지원 콩쿠르가 시작되었다. 청년학자들의 연구활동의 향상과 과학연구활동을 촉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콩쿠르는 올해 주정부에서 이 콩쿠르에 80만 루블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 지원은 7월 26일까지다. 신청서 평가에서는 사할린주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 과학기술 작업의 수준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등의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한다. 이 콩쿠르는 주경제개발부가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7년째 젊은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도로 상태 점검

지난 28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도시의 도로 수리공사 현장들을 찾아 수리과정을 점검했다.

시장은 콤포스카야와 고르나야 거리, 다음은 피즈쿠르투르나야(고르나야에서 크라이나야 거리까지) 거리 도로 상태와 포포위츠거리 보도 작업 현장의 상태를 점검했다. 나드사진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과 제안을 듣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시민들이 거리 보수작업에 있어 의견을 제안하는 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도로 보수공사들의 속도는 추위가 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중으로 양호한 평가를 내렸다. 시행정부는 도심 인도 보수공사에 역점을 두고 올해 도시의 도로 총 길이 12킬로미터의 22 노변 잔디밭도 정비 및 보수공사할 계획이다.

한림대, 사할린한인 관련 학술회 개최

한국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는 6월 28~30일 2박3일간 '2017 시베리아 한인연구 국제학술회의'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 맞는 학술회회는 한림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태강)와 사할린 국립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사회경제지원센터, 강원도민일보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사할린과 한국에서 순환 개최되는 올 대회는 한국에서 '한·러 지자체 협력과 러시아한인의 경제'라는 주제로 경제 및 한인 두 섹션으로 분리, 각계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을 거쳐 협력 확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목적을 세웠다.

주최 측에 따르면 1부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한러협력 사할린 한인과 한러경제협력' 이어 2부는 '사할린 한인과 한러경제협력, 끝으로 3부는 '종합토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술회 발제자 중에는 사할린국립대 도건식 법경제관리학 대학 학장(경제학박사), 사할린역사문서보관소 진 율리야 연구가(역사학 준박사),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총장 등이다.

한인 분야는 △사할린 주 한인 시민단체의 역사: 1989~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자서전 쓰기에 나타난 생애사 학습의 의의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문제에 대한 운동: KIN(지구촌동포연대)을 중심으로 등의 주제로 전문가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강석경** (1951년생) 소설가가 작가 파견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사할린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사할린에 희곡작가, 동화작가, 소설가 등 다섯 분이 다녀가셨는데 강석경 씨는 소설가로서 경륜이 가장 높다. 1974년에 한국 문학지 <문학사상>에 단편소설 '군', '오픈게임'으로 문학사상 제1회 신인상을 수상하여 등단했다.

강석경 소설가를 소개하기 위해 본사 **배순신** 기자가 작가의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았다.

- 우선 사할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가님께서 원래 전공이 미술에서 조각을 공부하셨는데 조각가로서도 많이 활동하셨는지요? 그리고 글은 어떤 계기로 쓰기 시작하셨는지요?

- 조각은 대학서 배운 것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소설가로 데뷔했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처음부터 작가를 꿈꾸었다는데 제 경우는 우연의 힘으로 작가가 됐어요. 대학 졸업반 때 아버지가 파산하여 등록금을 스스로 구해야 했어요. 그때 대학신문에서 문예현상 공고를 봤어요. 단편부분 상금에 장학금을 타서 보태면 등록금이 되겠더라고요. 웬지 쓰면 될 것 같았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글재주가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과연 당선 통보가 왔어요. 심사위원은 당시 이화여대 국문과교수이며 뒤에 문화부장관을 지내신 문학평론가 이어령선생님인데, 문학사상 주간을 맡고 있었죠. 선생님이 과찬을 하면서 문학사상에 1회 신인으로 데뷔시키겠다고 단편 2편을 써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으니 스승을 만난 것이 제 삶의 길을 바꾸었어요. 인생이 신비하죠.

- 선생님의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장편동화도 있더라고요.

모든 글의 시작은 '자기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넘어 나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작업이죠. 처음엔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술가란 무엇인가'와 '제도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작가란 늘 현상의 이면을 보는 사람이어서 밝음보다는 그늘을 그리고, 다수의 보편적 삶보다는 소수의 상처를 주시하죠.

“사할린 한인 2세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강석경 소설가와의 인터뷰

강석경 소설가

대구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장편소설로는 '청색시대', '가까운 골짜기',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내 안의 깊은 계단', '미불', '신성한 봄'이 있고 소설집으로는 '밤과 요람', '숲속의 방' 이 있으며 산문집 '일하는 예술가들', '인도기행', '능으로 가는 길', '이 고도를 사랑한다'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녹원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동리문학상 등을 수상 했다.



간단히 말하면 저의 소설 쓰기는 제가 선택한 인물의 내면탐구입니다. 내면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며 어떻게 인생을 알겠습니까.

- 어떤 작가는 직장에 나가듯 매일매일 글을 쓰고 어떤 분들은 영감이 내렸을 때 글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설 줄거리는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제 경우는 주제가 먼저 잡혀야 하고 디테일이 모아지면서 첫 장면이 떠올라야 글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장편 경우인데 단편은 장편에 비해 '손 풀기'라고나 할까요. 저는 장편작업을 좋아하지만 구상 과정이 길어서 과작입니다. 작가마다 글 쓰는 체질이 다르니 할 수 없죠.

- 선생님의 <숲속의 방>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한때 화제가 되었고 이 소설로 영화와 연극, 무용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숲속의 방>은 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 발표된 중편입니다. 당시 대학가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흑백논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누구도 시대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숲속의 방>은 정의라는 시대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던질 수 없었던 비운동권 여대생 소양의 방황과 절망을 그린 작품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지함에는 당시에 받은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 며칠 전 저는 뜻밖에도 이곳 한국교육원에서 당시의 독자를 만났답니다. 한국서 여행 온 4명의 여교사가 사할린 한국교육원을 방문했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한 교사가 만나기를 요청했어요. <숲속의 방>을 여고 때 읽었다는 그 교사는 나를 만나자 눈물을 글썽였는데 "책을 읽은 때가 생각나서 --"라며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가 앓은 청춘기의 열병을 알 것 같아요. "독자에게 작가는 연인과 같다"고 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 선생님께서 대구 분으로서 현재 경주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주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구는 중학교만 마치고 서울서 살았어요. 경주는 사십의 문턱에서 인도를 여행한 후 거주했는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는 수많은 고분들이 도심에 산재해 있어요. 천년이 넘는 거대 고분들이 둔덕인 듯 자연인 듯 이지러져 도심에 솟아 있는 풍경은 인류학적이고 근원적이어서 늘 저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경주에 와서 한국의 고대사 신라를 알았고, 신라를 안 뒤에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니 나의 근원으로 돌아간 거죠.

- 선생님께서 사할린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낮과 꿈>이란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셨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낮과 꿈>은 미군부대가 배경이 된 기지촌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일본 항복 뒤 미군이 삼팔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정기를 거쳐 미국은 한국역사와 얽히게 되죠. 기지촌은 바로 그런 한국사의 한 부분이고 일제와 얽혀있는 사할린도 한국사의 한부분입니다.

저는 기존의 기지촌 소설과 달리 여자들을 비참하게만 그리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도 인생을 긍정하며 잡초처럼 살아가

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 사할린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 사실 사할린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는 정도만큼 알고 있었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일본위안부문제에는 큰 관심을 가졌지만요.

사할린에 대한 관심은 체홉이 일깨워 주었다고 할까요. 저는 체홉의 희곡을 무척 좋아하는데 치밀한 현장보고서 <사할린기행>을 읽고 작가의 진정성과 노고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소설로 형상화할 생각이지만 유형지였던 사할린에서 곳곳이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 선생님께서 사할린에 일주일정도 계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선생님이 예상하신 것과 같으셨는지요?

- 사람에 대해 말하면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보다 사할린의 한인들이 훨씬 인간적으로 풍부해 보입니다. 남성들의 경우 사할린의 척박한 기후 속에서 다듬어진 듯 군더더기 없는 원목 같아 보기 좋습니다. 여성들은 각기 눈을 끄는 포스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요. 러시아의 드넓은 땅이 준 기질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괄목한 만할 성장을 했지만 영혼은 물질에 묶여있고 인성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 한인 2세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3세들은 거의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이 없을 듯한데 2세들은 그나마 부모의 나라 한국에 대한 미련이랄까 애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내나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구요.

- 사할린동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도 중요하므로 자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한국어가 다리가 되어 더 넓은 세계를 접할지 모르죠.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모저모

네벨스크 주민, 어부의 날 기념

7월 9일 어부의 날을 기념하여 네벨스코이명칭 구역문화회관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 모두를 초청하여 대규모 명절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이 행사는 정오 12시로 파찌노 해변가에서 시작한다.

프로그램에는 공식 축하행사, <네프톤 2017>콩쿠르, 전통적인 우하(러시아식 생선탕), 놀라운 각종 콩쿠르들, 즐거운 놀이, 가장 활동적인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주는 시상품과 선물, 스포츠 경기(전통민족 씨름, 비치 배구), 해변 디스코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날씨가 악화될 경우 명절 행사장을 네벨스코이 구역문화회관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문화회관 측이 전했다.

Невельчане отпразднуют День рыбака

9 июля РДК имени Невельского"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айона на большую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священную Дню рыбака.

Это популярное среди горожан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нется в 12 часов на берегу моря в Лопатино.

В программе праздника:

-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 конкурс "Нептун-2017"
- традиционная уха
- потрясающие конкурсы,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гры,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горожанам и гостям нашего города
-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ирым", пляжный волейбол, пляжная дискотека

В случае плохой погоды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енесются в РДК имени Невельского, сообщили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국제 반마약투쟁의 날 맞아 팔씨름 대회를 열어 기념

6월 26일 국제 반마약투쟁의 날을 맞아 주중앙도시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육 및 스포츠 지도부가 주최하는 <마약 없는 삶>이란 행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청소년이니셔티브센터 자원봉사자들은 행인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 증상에 대한 정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정보 전단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마약중독의 위협 방지, 예방책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상담기관과의 연결, 아동과 청소년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육 및 스포츠관리위원회 전문가 남 알렉세이는 "오늘 <마약 없는 삶>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팔씨름연맹 대표자들은 모든 희망자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와 미니경기를 개최했습니다. 도심 거리에서 열린 오픈 경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130명이 참가했고 경기의 모든 우승자들은 시·구에서 활동하는 가라테, 쿼도, 카포에라, 군용 싸움, 합기도, 검도, 격투기, 킥복싱, 태권도와 골프스포츠클럽으로부터 스포츠 섹션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약 없는 삶>활동과 연합하여 건강한 삶을 조성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기관 전문가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은 건강한 삶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따른 주제 행사 속에 청소년이니셔티브센터 소속 8개의 청년클럽에게서 조직적, 방법적 도움과 지원을 여러가지로 접할 수 있었다.

클럽의 활동과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니셔티브센터의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고 시청 홍보실은 전했다.

(8면에 계속)

일본의 전통미술과 현대 미술 소개

지난 25일(일) 사할린에서 제1회 러일 문화 예술축제가 열렸다. 3일간의 축제행사 중에는



러시아와 일본 작가들의 사진전, 이케바나 쇼, 공연 등이 있었다.

25일 사할린문화부 알렉세이 사마린 장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치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에서 러일 문화예술축제의 일환으로 2개의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미술관의 소전시장에는 순케 오가타의 개인전, 대전시장에는 <겨울 가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순케 오가타 화가는 일본전통 미술을 대표했다면 <겨울 가든>부문은 2007년에 생겨 젊은 화가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두 전시회는 7월 4일까지 개장된다.

(취재: 이에식 기자)

기자회견

제7회 사할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선정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할린에서 제7회 <세계의 끝>사할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7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사할린 영화



제가 열린 이래로 소박한 지역 행사인 <크라이 스웨타(세계의 끝)>영화제는 연방 규모의 행사가 되었고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국제적인 축제가 되었다. 사할린 영화제는 러시아 문화전통과 동남아 지역 나라들의 문화전통과도 만나는 러시아에서는 유일한 축제기획이다.

사할린 영화제가 영화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큰 축제로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세계의 끝>영화제는 이제 도서주민 자신이 발전하도록 협력하는 사회공동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영화제 2회부터는 알렉세이 아그로노위츠가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작년에는 주정부의 인사이동, 그리고 영화제 콘셉이 바뀌어 잘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아그로노위츠와 그의 팀이 사할린영화제를 맡을 수 없다고 표명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었다.

이 소식에 많은 영화애호가들은 무엇보다 사할린영화제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에 유감을 표하기도 하고 시위한 주민들도 있었다. 더군다나 작년 영화제를 맡은 팀이 경쟁프로그램 영화 선정을 잘 못한 비판도 있었고 집행위원회 측에서 실수한 점도 있어 전에 실시된 프로그램들과 워크숍들이 중지되어 일반 사할린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었다.

이를 고려하여 사할린주정부는 알렉세이 아그라노위츠에게 다시 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과 함께 협상을 하게 되었다.

4월 중순에 이에 대한 보도가 사할린에 퍼졌고 그 당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제7회 사할린영화제에 대한 주요 정보가 알려졌다.

예전과 같이 주정부 청사 앞에는 영화제 클러스터(영화단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체호브센터 옆에는 정보센터와 경쟁프로그램 등 제작진, 배우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배치되고 밖에는 600석의 영화상영장이 마련되며 워크숍을 위한 캠프도 설치될 전망이다.

알렉세이 메드웨제브가 프로그램 진행을 다시 맡게 되면서 경쟁 프로그램은 러시아에서 2016-2017년에 제작된 영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영화 총 8-9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 사할린을 찾은 알렉세이 아그라노위츠는 제7회 <세계의 끝>영화제 총 프로듀서이며 사할린주 문화부의 알렉세이 사마린 장관이 공동실행위원장이 되고, 사할린주 영화여가기관 관장인 드미트리 오를로브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지난 26일(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렉세이 아그로노위츠는 이날 영화제에 선정된 심사위원들을 발표했다. 위원장으로

는 마리나 라즈베즈키나 감독, 위원으로는 포트르 포도로브 배우와 알리사 하사노와 배우,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야마무라 코지와 인도의 감독 간지 아난드(제4회 <세계의 끝> 대상 수상)다.

또 이번 영화제에서는 야쿠치야 지역 영화제작진들의 경험과 성공담도 소개할 전망이다. <영화관람을 하는 법, 영화관람을 해야 하는지?>란 토론장도 흥미를 둘을 것 같다. 영화제를 하는 동안 워크숍(창작작업실) 6개가 펼쳐지는데 그중 2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업실이고 가장 인기 많은 작업실은 <유럽인과 아시아인>이다. 이에 참가신청은 이미 마감되었고 지원등록은 영화제 사이트를 통해 하고 있다.

영화제에 지역 언론매체들의 지속적인 취재는 물론이고 전보다 훨씬 많은 연방 언론매체들이 취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이란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로 중국, 홍콩, 한국과 일본 영화가 상영됐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 관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기다린다고 조직위원장이 밝혔다.

아그라노위츠 조직위원장은 이날 "영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로서는 큰 행복이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낙담하기도 하고 불안감도 느낀다. 그러나 사할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축제를 찾아온 경험상 나의 많은 동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에 대해, 영화에 대해, 자신에 대해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나에겐 이것이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순신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일본 정부가 이중징용의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한국 정부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상황에서, 안명복 선생에 이어 현재 유가족회를 이끌고 있는 서진길 회장은 아래와 같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사할린주 한인회 단체장들과 함께 일본 외무성과 적십자사를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장한 것은 딱 하나야. 이중징용 피해자의 명단이라도 정확하게 밝히려는 거지.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고."

일본 방문 시기에 서진길 회장과 동행했던 나는, 사할린 이중징용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안명복 선생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나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선생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무도 진실을 알려 주지 않고, 또 아무도 진실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이 무정한 '현실'일 거라는. 그로 인해 선생은 여전히 핏물 흐르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또한 반성을 하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며, 오직 그런 사람만이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왜 어떤 권력자들은 이토록 자명한 원리를 저버리는 것일까. 이미 죄업이 다 드러났는데도 어찌하여 손바닥 하나로 그것을 덮어 은폐하려는 것일까. 또한 상처 입은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기는커녕 왜 그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돌을 던지는 것일까.

안 선생도, 나도 그 이유를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스스로 진실에 눈뜰 수 없는 이들에게는, 누구라도 나서서 알려줘야 한다고 여길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나는 기록한다. 아직도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아마도 그 작업은 계속되리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사할린 한인 국적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김명자 나는 누구고 내 나라는 어디인가?

이것은 이른바 '뎀봉'에 빠진 사람의 독백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일체의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간 후 끝내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불박어 살아야 했던 사할린 한인들은, 점령국이 바뀔 때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익히며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으니까. 특히 냉전체제 아래서도 '한국인'이라는 신념을 포기하지 못해 소련 국적 대신 무국적을 선택해 살아온 이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다. 소련 연방정부는 자국의 국적을 거부하는 한인들을 뜨내기 외국인노동자처럼 취급했고, 한국 정부는 "당신이 한국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며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어떤 보호와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그러니 누구라도 불등고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나는 누구고 내 나라는 어디인지를.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김명자(60) 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소송을 건 그에게, 지난 2014년 6월 16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거둔 이 같은 결과로, 김씨를 비롯해 사할린 무국적자 한인들에게도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소련 국적 받지 말라'던 아버지의 유언

김명자 씨는 1954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다. 김씨의 큰오빠인 김덕일(72) 씨에 의하면, 아버지 김말수 씨가 처음 사할린에 들어온 것은 1938년경. 당시 포로나이스크의 와흐루세어 탄광에서 일했던 청년 김말수는 1년 후 부산으로 돌아가 이분열을 만나 결혼했고, 그 뒤 아내와 함께 다시 사할린으로 와서 모두 11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 각각 1977년과 1982년에 사망했다고 한다.

자녀 11명 중 3명은 먼저 세상을 떴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8명인데, 그 가운데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이는 오직 김덕일 씨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명자 씨를 포함해 3명(오빠와 남동생)은 심지어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김덕일 씨도 2000년에 러시아 국적을 얻기까지는 무국적자였다고 한다. 한인 1세를 제외하면 무국적자가 거의 없거나 줄어드는 추세에 비해, 이들 삼남매의 행보는 좀 유별나 보이는 것이 사실. 나는 김명자 씨에게 무국적자를 고집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24 июня принимал участник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форума "Народы. Религии. Общество",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3-24 июня.

М а с т е р - к л а с 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подготовили и провели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м желающи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приготовить популярное блюд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имбап.

О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оллы, завернутые в сушеные пресованные листья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наполненные приготовленным на пару рисом, с добавлением начинки, выложенной полосками, из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ветчины, омлета и других ингредиентов.

К столу кимбап подадут нарезанным кружочками, которые едят палоч-

ками, обмакнув в соевый соус с семенами кунжута.

Его удобно взять с собой на пикник или съесть прямо на улице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к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этого, далеко не прост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задания,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и оценить неповторимый вкус этого и других заме-

чате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а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Джу Хван и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Петр Пасюков. САХКОМ)

ПАМЯТЬ. ПОСЛЕДНИЙ ПОКЛОН ДО ЗЕМЛИ

Исследованы списки расстрелянных по архивам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гребенных на Мемориале памяти на 12 км Московского тракта. Установлены более подробные данные по персоналиям данного списка.

«Кто мы, откуда и как оказались в России» - вот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задают себе все корейцы, особенно нынешнее поколение. И многие не знают историю советских и нынешни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я написано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ниг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ответы на эти вопросы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к трудам известных ученых-корееведов как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к и современных ученых.

В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страшных и трагических страниц, повествующих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Это и массовый исход наших предков из Кореи в рай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следующее пересел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 (в основн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ашкентской 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Но есть особая страница в этой истории – это огромн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невинно расстрелянных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Японии.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коснулось наиболее грамотных,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оказались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одых, начинающих жизнь, людей.

Так, волею судьбы, я с 2001 года стал жить в г. Екатеринбург. И много лет спустя узнал о том, что на 12-м км Московского тракта есть Мемориал Памяти, посвященный жертвам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Это было место массовых захоронений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1937-38 гг.

Среди фамилий, высеченных на мемориальных плитах, мы обнаружили почти 100 человек-корейцев. Обратившись в архивы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провели исслед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ых мы и привели в этой работе.

Наша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памят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подвергшихся массовой репрессии 1937 г., особенно, памяти безвинно расстрелянных и неизвестных их родственникам. Мы хотим обнародовать эти списки через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попытаться найт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этих люде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Екатеринбург (ЕГОО «НКА РК»)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тра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8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1937г.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ко времени начала Большого террора, прибыли сюд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на учебу или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Как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епрессии здесь носили плановый характер.

В ходе работ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ргано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и было выявлено 107 дел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в графе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стоит «кореец».

Попытаемся привести статистику. Сред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1934-1939 гг.:

- арестованных в возрасте до 25 лет - 54;
- арестованных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25 лет – 45;
- уроженцев Кореи – 20;
- уроженц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РСФСР – 79;
- выходцев из крестьян – 71;
- из зажиточных крестьян – 2;
- рабочих – 15;
- служащих – 9;
- студентов высших и средн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45;
-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 8;
- со средним и средне-специ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

53

- членов ВКП(б) – 12;
- членов ВЛКСМ – 25;
- беспартийных – 56;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 расстрелу – приговорены 70 человек, к разным срокам в ИТЛ – 13. И только в 7 случаях после ареста дело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Большинству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предъявлено обвинение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 участникам запрещ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и «Шанхайцы»,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с началом обостр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ССР с Японией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как подрывная,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ая.

Большинство расстрелянных по приговорам членов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захорон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30-50 гг. на 12-м км Московского тракта.

Первые сведения об этом трагическом месте появились в прессе в 1989 году. В частност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в 1967 году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портивной базы «Динамо» строители наткнулись в нескольких местах на захоронения людей. Множество человеческих останков лежало друг на друге. У всех в черепе были отверстия от пуль. О находке сообщили тогдашнему начальнику УВД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Еремину. Но тот лишь приказал закопать все обратно и забыть о происшествии, пригрозив невольным свидетелям в случа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расстрелом.

Чуть позже, в 1989 году, нашлись свидетели того, как происходили сами захоронения жертв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Двое охранников, стороживших в 1930-х годах территорию захоронений, рассказали, что рвы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рядами. Каждый ров был 45 метров в длину, 4 метра в ширину и по 2 метра в глубину. Тела безвинных жертв сталинского террора массово свозили сюда по ночам в грузовиках и скидывали в яму.

Посл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убликаций в прессе в 1990 году прокуратура произвела частичную эксгумацию одного из захоронений около Ново-Московского тракта. С одного только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были извлечены останки 31 человека. Органам НКВД в то время спускали «сверху» план по расстрелам.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нский план перевыполнили... Ни в чем не повинных людей арестовывали, пытали, предъявляли совершенно абсурдные обвинения. В подвалах НКВД на ул. Ленина, 17, только за неполные два года (1937-38 гг.), расстреляли около 20 тысяч (!) человек. Порой за одну ночь расстреливали до 400 человек. Казнили даже известных в городе людей: деятелей науки, искусства, профессоров, видных партий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1992 году территория массового захоронения площадью в 75 гектаров была объявлена 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В 1993 году начались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здесь памятни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а состоялось 26 октября 1996 года. Здесь установ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литы с фамилиями, инициалами и годами рождения многих тысяч до сих пор покоящихся здесь в земле жертв (перечислено более 18500 человек). По надписям можно увидеть, что тут есть и совсем молодые люди,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только начавшие жизнь, есть и женщины.

14 июня 2003 года открыли еще один памятник – безымянным погибшим в тюрьмах и лагерях ГУЛАГ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а есть небольшой музей.

Мы постарались най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а все памятные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расстрелянных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ейцев.

В результате изучения и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информации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мы выяснили, что не все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ключены в Книгу памяти. Кроме того, отбирая информацию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Поименного перечня, мы посчитали нужным включить в него информацию о родственниках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так как э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овернее отследить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погибших.

Данная работа ставит целью попытаться найти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людей, покоящихся в безвестности на Мемориале памяти.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привели данные только по трем жертвам тех репрессий.

Кан Дин Хван (29 августа 1905 г.)

Родился в Корее в селе Муфэни. Жена Ким Александра (г. Караганда), сын Николай, отец Кан-ы-Хан (г. Караганда), братья Кан-Сек-Но и Кан-Чин-Док (Корея).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проживал в городе Свердловске, в березовских бараках. Из семьи крестьян-бедняков. Образование: рабфак города Златоуста, работал техником-интендантом 2-го ранга, служил в 11-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батальоне. Являлся членом ВКП(б) с 1929 года.

Арестован лейтенантом Г. Б. 1 отд. ГУГБ НКВД УРАЛВО Елкиным 16 декабря 1937 года, обвинен в шпионской работе в пользу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пония). Осужден 15 янв. 1938 г.

Расстрелян 27 января 1938 г.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НКВД СССР от 15 янв. 1939 г.

ГАООСО, фонд Р1, опись 2, дело № 28972.

Кан Дин Хо (25 августа 1903 г.)

Родился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Жена Нан Екатерина, дочь 1 месяц, братья Нан-Хва-Сан (ст. Кедровка, ДВК), Хан-Ен-Су (г. Владивосток), Нан-Тон-Дюн (с.Пушиловка).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проживал в РСФСР, г. Свердловск на ул. Молотова д. 4, кв. 11. Из семьи крестьян-арендаторов. Образование среднее, числился студентом техникума советской торговли. В партии не состоял.

Арестован лейтенантом 1 отделения III отд. УНКВД Гуменским 28 апр. 1937 г. Обвинен в шпионской работе в пользу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пония) 11 мая 1937 года.

Расстрелян 17 сентября 1937 г.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указом ПВС СССР от 16. 01. 1989 г.

ГАООСО, фонд Р1, опись 2, дело № 41775.

Ким Александр Кириллович (26 июля 1912 г.)

Родился в РСФСР, с. Корсаковк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Жена Ким Марфа (19 лет), отец Ким Кирилл Васильевич (45 лет), мать Ким Анастасия (46 лет, г. Сырдарья), братья Ким Дионис Кириллович (21 год, г. Омск, Ленинский поселок д.15), Ким Леонтий (17 лет), Ким Анатолий (15 лет), дед Ким Василий (61 год), бабушка Цой Екатерина (60 лет), сестра Ким Августа (3 года).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проживал в РСФСР, г. Свердловск. Северный поселок, общежитие ПВО НКВД. Из семьи крестьян-бедняков. Образование: 6 классов и ФЗУ, числился курсантом школы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УНКВД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ртии не состоял.

Арестован лейтенантом 2 отделения III отд. Панфиловым 23 дек. 1937 г. Предъявлено обвинение в участии в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корейцев». Осужден 15 янв. 1938 г.

Расстрелян 27 янв. 1938 г.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указом ПВС СССР от 16. 01. 1989 г.

ГАООСО, фонд Р1, опись 2, дело № 32929.

В.В.Тхай,
Т.А.Глазырина, Г.С.Веденева
г. Екатеринбург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ан Гён Хва: РК не отменит решение о размещении THAAD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изменит соглашения с США по развертыван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 THAAD. Об этом 26 июня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н Гён Хва во время форум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Чунан ильбо»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нститу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ША.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а,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отменя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е в рамка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юза.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лноцен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ы относительно комплексов THAAD, то она не является попыткой отказа от проекта, а наоборот послужит хорошим шансом убедить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местить THAAD и укреп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оюз.

РК предложила КНДР создать единую олимпийскую сборн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деется 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предложение создать единую корейскую сборную для участия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2018 год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Пхенчхане. Об этом 26 июн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Ли Док Хэн.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озвучил желание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корейской олимпийской сборной, выступив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на открытии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уезде Му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В своей реч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омнил о прошлых спортивно-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гда Юг и Север вместе добились успехов.

КНДР представила список требований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НДР потребовала о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ключить из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т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24 июн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овет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имирения сделал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указал,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малчивает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и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в деле улуч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завися от мнения США и марионеточных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Кроме того, Юг,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безосновательно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падки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р КНДР по развитию ядерных сил в рамках укрепления самообороны, выступая за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на Север. Совет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имирения представил и список требований, состоящий из девяти пунктов. Это требование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по улучш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кратить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США, остановить взаимную критику и оскорбления,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угроз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исключить из диалог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НДР тему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отменить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нкции, свернуть политику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относительно КНДР, вернуть работниц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в Китае, бежавших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рганизо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является выражением протеста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зи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ун Чжэ Ина о том, что диалог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при прекращении Севером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провокаций. Кроме тог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попыткой более точно обозначи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в преддверии самми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ША.

Суд приговорил Чхве Сун Силь к трем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23 июня суд вынес приговор Чхве Сун Силь, близкой подруге Пак Кын Хе, по делу о незаконном поступлении ее дочери Чон Ю Ра в ж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хва. Она,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а приговорена к трем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Это первое решение суда по одному из эпизодов крупного дела о корруп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хве Сун Силь, в том числе о ее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работ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уде отметили, что Чхве Сун Силь считала допустимым нарушить закон 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процедуры в интересах своей дочери. Бывший 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хва Чхве Гён Хи и бывший декан Ким Гён Сук, оказавшие содействие Чхве Сун Силь, получили по два года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Бывший глава отдела по приему студентов Нам Гун Гон был осужден на полтора года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Профессора Рю Чхоль Гюн и Ли Ин Сон были осуждены на один год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приговора на два года за незаконное начисление баллов Чон Ю Ра.

(RKI)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США

28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отправился в СШ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ллегой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изи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длится 5 дней. Э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саммитом сторон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ов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ле прибытия 28 июня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 Вашингтон Мун Чжэ Ин начал офи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США возложением цветов у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Битвы при Чосинском водохранилище, которая произошла в 1950 году в ход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ходе той же битвы корпус ООН в составе первой дивизии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США был окружён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силами китайских войск.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ледних составляла 120 тыс. человек - в 10 раз больше окруженных американцев. В тяжелейших условиях американские под-

разделения сумели выйти из окружения и прорваться к городу Хыннам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Намдо, откуда впоследствии они были эвакуированы на Юг Кореи. Тогда с помощью 193 кораблей было эвакуировано 200 тыс.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ил ООН и мирных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и родители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который позже родился в городе Кочжэ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Дале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выступил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Круглый стол бизнес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ША». На 29 июня намечен ряд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уководства обеих палат Конгресса США, а также вид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удут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оюз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Ш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приеме в Белом доме, где главы двух стран встретятся впервые. 30 июня состоится двусторонний саммит и саммит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Главы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я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вопрос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меры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После саммита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ведут итоги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в с совместным заявлением для прессы. Затем последуют участие Мун Чжэ Ина в совместном обеде с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Майкл Пенсом и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речью в Центр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1 июля гла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а 2 июля вечером отправ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KBS World

Япон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по ликвидации Сеулом Ким Чен Ына

Предыду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всерьез рассматривала вопрос о физической ликвидации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решив замаскировать это под несчастный случай. Однако из-за сложностей операции от нее пришлось отказатьс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японская газета "Асахи Симбун".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Южной Кореи Пак Кын Хе произошло дальнейшее ухуд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Был закрыт даже Кэсонский 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пережил все предыдущие кризисы. Пак была досрочно отстранена от власти 10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импичмента,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 ей парламент страны и поддержал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о информации "Асахи", которая ссылается на "источник,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ный о политике по КНДР в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нце 2015 года подписала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нты смещ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с поста лидера КНДР. Реализация плана была возложена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службу (НРС) Южной Кореи. Содержание документа в подробностях не приводится, но отмечено, что среди возможных сценариев была отставка Ким Чен Ына, его побег или убий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изучало самые разные способы устранения Кима, включая маскировку убийства под несчастный случай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на автомобиле, поезде, катании на водных лыжах и прочее", - цитирует газета слова источника.

Собеседник добавил, что факт данного плана держался в строгом секрете, чтобы не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из-за слишком сильной охраны лидера КНДР и прочих трудностей, спецслужбы Сеула отказались от планов по устранению Ким Чен Ына.

"Асахи Симбун" также отмечает, что именно НРС во многом виновна в том, что у Пак Кын Хе слож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будто бы ситуация в КНДР нестабильная и Ким Чен Ы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но сместить. "В разведке поняли, что Пак Кын Хе нравятся разговоры о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и устранении Кима, она хочет верить в это, а потому ей стали делать доклад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одержания", - утверждает издание.

В НР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ли информацию "Асахи Симбун".

Аналогич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и один из бывш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который работа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ак. "В ходе различных заседаний и совещаний могли конечно высказываться какие-то идеи по поводу смены режи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о чтобы это появилось в виде отдельного документа или конкретной политики - такого не было", - заявил бывший чиновник в интервью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информгентству "Ёнхап".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правда находится где-то посередине. Именно при Пак Кын Хе в составе спецназа Южной Коре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полк "ликвидаторов" Ким Чен Ына, а командос США и Кореи в ходе всех учений стали отрабатывать опера-

ции по устранению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а, включая вождя. По информации НРС, охрана КНДР узнала об этом и стала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заниматься вопрос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Ким сократил количество поездок по стран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авления Пак Кын Хе также стали мног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режим в КНДР нестабилен, наро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спытывает сильн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своим лидером. Кроме того,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что в январе 1968 г. КНДР организовала покушение на отца Пак Кын Хе,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жон Хи, а затем во время второго покушения в августе 1974 г. убили его жену, то есть мать отстраненного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Так что поводов для желания поквитаться с Пхеньяном у Пак Кын Хе хватал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Асахи Симбун" просто спекулирует на этих известных фактах, подгоняя под них скандальные слухи и создавая версии о заговорах и убийствах.

Буквально вчера именно это издание вновь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шумиху, когда сообщило, что США якобы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Южной Коре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развернуть батарею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 THAAD. Эта тема весьма резонансна сейчас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потом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треагировала очень быстро. Помощ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заявили,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Асах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ыразив сожаление тем, что издание занима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беспочвенных слух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е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форум «Народы. Религии. Общество.»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ДФО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убъект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диаспор.

Гражданский форум открыл окружной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го обсудили состоя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регионах,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работы, а также обозначили задачи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Андрей Меженко, одной из проблем, которую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явля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даптация мигрантов.

- Наша страна испытывает серьезную миграционную нагрузку, но у нас пока нет органа, который бы вел эту работу. Надеем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наше агентство вместе с профильным комитетом Госдумы,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экспертами заним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проек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Это основно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та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егионах,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Меженко.

На важность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и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в сфер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на местах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ГД РФ,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льдар Гильмутдинов.

- У нас есть обращение, что на уровне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недостаточно полномочий, чтобы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Мы сейчас обсуждаем, нужно 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ормы, либо это могут сделать сами субъекты. Нам как законодателям очень важно слышать, что говорят в регионах.

Работу форума продолжил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На них обсуждались правовые аспект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в сфере укрепления единств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й Стратег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а такж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о второй день гражданского форум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Ани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ы, где прош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встретили День поля

Больш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сегодня в районе села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округа. Здесь выбрали лучшего пахар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знакомили собравшихся с новейш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отрасли и удивили обилием образцов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выполняла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работ от обработки почвы до сенокосени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щедро угощали продукцией от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 настроение сахалинцам поднимали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Мощный трактор на приличной скорости пашет внушительных размеров поле. Сразу за ним еще одна сельхозмашина разбивает куски земли и засеивает пашню. Весь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проводится в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У посет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Дня поля такой процесс обработки почвы вызвал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Даже ветераны отрасли –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 были поражены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овременных агрегатов.

- Эта техника, по моим расчетам, в 7-8 раз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ее той, на которой работали в прежние годы, - да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проработавший много лет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н ознакомился и с другими процессами: «Один из трактористов моментально скосил 12-метровую полосу травы и разбросал ее сохнуть. Я начал вспоминать, сколько усилий потребовалось бы прилож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такого же результата 40 лет назад. Так вот, при наличии та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то время для обработки 1000 гектаров поля потребовалось бы иметь меньше на 15 тракторов и 40 механизаторов. Вот что значит современна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Главное – она позволяет добиться получения продукции при значительно меньших затратах».

Подобные сельхозмашины от известны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о при этом сделанные в России, недавно приобрел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Всего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18 новейших тракторов мощностью от 213 до 340 лошадиных сил и 14 единиц прицепной техники. В результате нынешняя посевная прошла высокими темпами – всего за 9 дней - и без единой серьезной поломки. По душе промышленные новинки пришли и механизаторам. Их сравнивают с легковыми автомобилями по уровню комфорта. Каждый трактор оснащен системами навигации, климат-контроля и автопилота – даже при случайном отпускании руля машина не сбивается с курса, допускаемое отклонение - 3-4 сантиметра. Управление доступно и школьнику – в просторных салонах вместо тугих рычагов установлены планшеты.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на данную технику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гарантия 2 года.

-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ие хозяйства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40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отрасли позволяет нам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емель. Это та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перед нами ставит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

сандр Якуша. –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бы с каждого гектара получать максимум продукци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одолжаем вводить в оборот земли,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течение 20-30 лет, проводить сортоиспытания и расширять площади под однолетние и многолетние культуры. 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создаем мощную кормовую баз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под кормовые культуры в области отведено 6500 гектаров – это на треть больше, чем в 2016.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расли добавил,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оборот весь объем пашни на Сахалине - 35 700 гектаров, а также привести в надлежащее состояние сенокосы и пастбища. С этой задачей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Троицкого уже справилась компания «Грин Агро Сахалин». Сейчас она достраивает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рупной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й фермы на 1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с молокозаводом.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сюда завезут высокопродуктивный скот. А к концу года появится первая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подобная той, что уже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Оценить ее вкусовые качества, а также попробовать товары от других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строва на празднике смогли все желающие. Совхоз «Корсаковский» например, предлагал стойки, а «Тепличный» - огурцы и помидоры. Из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видов овощей на стенде предприятия сложили оригинальную композицию.

- Любы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нас - творчество,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не заострять мозг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умать, как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чтобы было красиво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 Поэтому ищем лучшие варианты и находим их, - сказала Елена Бутк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цен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тем, что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Можно рекламирова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а можно позаимствовать чьи-то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Аграрный бизнес редко позволяет руководителям встретиться в одном месте. Вот эта неформ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как раз оптимальна для подобных контактов, - считает фермер Александр Духанин.

На День поля он прибыл и по еще одной веской причине –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ахарей. Конкурсанты должны были управиться с трактором с оборотным плугом и вспахать небольшой участок земли, которую не поднимали более 20 лет. Лучшее всех с заданием справился механизатор из «Тепличного» Юрий Востриков,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главный приз и поеде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Вострикову и другим показавшим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пахарям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и сказать, что у вас – лучшая профессия, одна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Вы и ваш труд всегда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 отметил зампред.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ынешний праздник поля продолжался в течение более чем 3 часов. Он объединил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человек – ветеранов и действующих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поставщико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инансовых и лизин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еных и студентов. Их ознакомили с основными мировыми тенденциями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ыращивания овощей и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научили выбирать поставщиков сельхозмашин. Вниманию собравшихся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коло 100 единиц поч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осевной, кормозаготовительной и уборочной 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уже сегодня применя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ьзуется ею не только крупные хозяйства, но и фермеры, а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округе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намерены построить 3 завода, стройцех, складскую базу 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емпинг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ых проектов состоялась в Корсакове. Напомн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ет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О своих инициатив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й рассказали комиссии пр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м совете порта. Доклады были подкреплены расчетными данными – о финансовой стоимости начинаний, предполагаемой прибыли, бюджет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создании рабочих мест.

Введенный в Корсакове особый режи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зволяет бизнес-структурам получать ряд преференций. Среди них – льготы по налогам на землю,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ез торгов, по кадастровой стоим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работает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 без пошлин и налогов можно ввозить и вывозить продукцию, обрабатываему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рта. Все эти правила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резидентов. Чтобы ими ст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ли компаниям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бизнес, а также вложить в него не мене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течение 3 лет.

Такие условия вед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кануне сочл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шесть новы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Сразу две компании посчитали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открыть в Корсакове заводы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руб. ООО «Блок» предложило выпускать такую продукцию из стекло- и базальтопластика. Применение ей находят в энергетике, химической, атомной, нефтяной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ах. Подобные трубы производят в России с 1990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з них смонтировано более 1000 километров трубопроводов. В частности, широко эта технолог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 Урале.

- Полагаем, что наша продукция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цел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оценить ее преимущества, мы готовы за свой счет смонтировать участок трубопровода в Корсакове,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 Наши трубы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легче стали, монтируются просто и быстро, не требуется гру-

зоподъемная техника, сварка, изоляция, электрохимзащит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щутимо снизить расходы на монтаж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аналогами. Они легко стыкуются с запорной арматурой и стальными трубами, устойчивы к агрессивным средам и не подвержены коррозии, имеют теплопроводность в 150 раз ниже стали, что дает ресурсо- и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ий эффект. Подобные трубы можно применять и пр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 из них получаются долговечные столбы, опоры освещения и светофорные колонк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асчетам, который сдел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завод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может ежегодно выпускать до 120 километров труб различного диаметра. Под его размещение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лощадка у села Дачное.

Второе подоб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намерена построить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трубный завод». Производить трубы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 – до 1000 тонн в год - о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из полимеров. Сферы применения – нефтегазовая и коммунальная сферы.

В планах у третьего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резидент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 ООО «Теплострой» - возвести стройцех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енополиуритановой скорлупы для теплоизоляции трубопроводов и шлакоблоков. А «Восточная транспортно-экспедиторская компания» рассчитыва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открытый склад для труб и контейнеров на незастро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й нефтебазы. Максимальная вместимость площадки составит 36 20-футовых контейнеров и 256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труб.

Еще один завод, где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ек, предложила создать в Корсакове компани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Ранее она поставила крупные металл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для монтажа зданий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магазинов «Орбита», «Рояль»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анорам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Важ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которыми обладает наша продукция –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сравнительно низкой стоимости – она примерно на 20 процентов дешевле аналогичной российской, - заявил один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и Геннадий Пак. – Здания из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 сейсмостойкие, сравнительно легко и быстро возводятся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бираются и переносятся на другие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и этом технология позволя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различ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Зарубежный инвестор намерен получить в Корсакове площадку под размещ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 учетом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льгот и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таможенных платежей, оно буде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считает Пак.

С выгодой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гатый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решил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Юрий Дешевый. Его проект связан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комплекса для отдыхающих под названием «Бухта Чайка». Расположится он в районе мыса Трудный -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живописных мест юга Сахалин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бизнесмен получил здесь по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На нем планирует построить необыч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лагерь из 11 жилых курт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50 человек.

- Это будут не палатки и не капитальные строения, а некий промежуточный вариант. Задача – чтобы туристы ощутили единение с природ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аходились бы в достаточно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 отметил инвестор.

Посетителям будущего комплекса он намерен предложить полный комплекс услуг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увлекательные пеше-водно-автомобиль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с элементами экстрима, питание с рационом из свеж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морскую рыбалку, дайвинг, скалолазание, бассейн и русскую бан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роме того,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санузлы и душевые,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и экомарковка.

Уже разработаны несколько туристских маршрутов: на мысы Трудный, Великан, Евстафия, Анива, Грозный, Острый, Веселый, к лагуне Буссе, на озера Птичье и Баргузинское, а также к мараловой ферме.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нашел партне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гостиница Мега-палас готова возить в лагерь туристов, - добавила Наталья Осип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все предложенные инвесторами проекты получили одобр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оми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который вел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годня задача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казании максим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 Ключевой посыл в этой работе - помогать, а не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информировать бизнес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тимулировать к открытию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созданию рабочих мест, своевремен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росьбы. Помимо преференций и льгот,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для его резидентов мы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ить и и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 например,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часть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ей и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Все это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издержки для бизнеса и ускори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водя итоги заседания.

Напомним,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инвесторы под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7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атуса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о осуществить, связаны с созданием нов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терминала и рыбн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центра в порту Корсакова, а также ряда начинаний в сфер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уризма, энергетики и вторич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материал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전 세계한인학자 축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개막

전 세계 동포연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학술축제인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가 27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학술행사로,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17개국 150명의 재외동포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동포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일본 주류사회에 진출한 대표적인 재일 조선족인 리상철 일본 류코쿠대 사회학 교수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위안부 피해자 보상 운동과 한국 문화유산 교육에 힘쓰고 있는 민병갑 미국 켄즈대 교수, 고려인 이주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수 등 한인 연구자들은 물론 NPO 활동가와 정계 인사도 참석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섰다.

27일 오전 열린 개회식은 주철기 이사장의 개회사, 최영호 재외한인학회장의 환영사,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의 축사, 세계한인학술대회의 운영위원장인 이진영 인



하대 교수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철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며 국력의 외연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의 평화변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히는데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고르게 조명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글로벌시대 재외동포 역량을 한껏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주제별 기획세션이 진행됐다. 기획세션 I에서는 <동북아 시대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에는 <동포사회의 변화

와 차세대 코리안 커뮤니티>를 주제로 기획세션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외교부 2차관 주최 환영만찬을 끝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다.

대회 이틀째인 28일에는 기획세션Ⅲ를 통해 <국내 거주 동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기획세션Ⅳ에서 재외동포의 외연 확장을 포함한 동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28일 오후부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CIS, 동남아·중남미, 유럽·오세아니아 등 6개 지역별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 대부분이 현지 거주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동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인사회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은 29일 폐회식에 앞서 분과별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재단)

강제이주 80주년, 고려인사회의 이주와 정착, 문화예술(교육)과 재생 모색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외대 BK21+ 에스닉-코리아타운 도시재생 사업단, 카작국립대 한국센터,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난>, (사)고려인마음이 주관하는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러시아-CIS 지역세션이 "고려인사회의 이주와 정착, 문화예술(교육)과 재생"을 주제로 연구자와 활동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며, 전 세계 17개국 150여명의 동포 연구자, NPO 활동가들이 기획세션과 지역세션에 각각 참석하며, 러시아-CIS 지역세션은 36층 피콕스위트에서 28일 오후 학술분과, 29일 오전 NPO 분과로 진행된다.

카작국립대 한국센터,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등이 공동 조직으로 참여하면서, 학술 및 NPO 분과 9명의 발표자 중 8명이 고려인동포 연구자, NPO 활동가로 구성되었으며, CIS 고려인동포 사회의 시각과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학술 및 NPO 분과는 각각 독립된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을 맞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 및 국내 귀환 고려인사회의 이주와 정착'과 '고려인사회의 학문화 문화예술', 그리고 '국내외 고려인사회의 문화예술교육과 재생'이 각각 독립 분과로 구성되어 논의와 토론을 전개한다.

－ 28일 학술1분과에서는, 우즈벡 학술원 역사연구소 한 발레리 박사가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소수자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2011년 방문취업비자(H2)로 우즈벡에서 조상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시인 김 블라디미르(전 타슈켄트의과대학 러시아어문

학 교수)는 연해주~우즈벡~한국으로 이어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3세대의 삶을 적었다. "나는 아마도 못 볼 것 같지만, 너는 반드시 내 모국을 보아야 한다"는 부모의 꿈을 이루고 또 정막래교수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 내린 첫눈』 시집까지 발행한 김 블라디미르는 '마을의 지성'으로 고려인 마을의 지역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 28일 학술2분과에서는, 고려인사회가 이룩한 학문과 문화예술을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21회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사회의 문화예술축제인 카라안다를 소개하는 키예프국립대 한국어문학과에서 20년째 강의하고 있는 김석원 교수의 발표가 주목된다.

－ 29일 NPO분과에서는, 국내외 고려인사회의 문화예술교육과 재생이 주제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슈켄트(세종한글학교), 우수리스크(고려인문화센터)와 국내의 안산과 광주의 고려인마들을 살피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공공외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난"의 활동을 소개하는 윤희만 센터장의 발표가 주목된다.

임영상 한국외대 BK21+에스닉-코리아타운 도시재생 사업단 단장은 "강제이주 80주년을 맞는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사회 및 귀환 고려인사회의 이주와 정착, 고려인사회가 이룩한 학문화 문화예술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고려인사회가 끊임없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에스닉타운 지역재생의 롤 모델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며, "초국적, 디지털 시대에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외 고려인사회가 역사적인 조국인 대한민국과 함께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2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23호의 계속)

3. 보기와 같이 '-다(고) 해도'를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보기 공부하기가 (힘들다) / 꼭 꿈을 이루고 싶어요.
→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꼭 꿈을 이루고 싶어요.

(1) 회사 생활이 (바쁘다) / 보람이 있어요.
→
(2) 한국 김치가 (맵다) /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
(3) 버스가 지하철 보다 조금 (늦다) / 자리가 더 많아요.
→
(4) 학교 도서관은 (쉬는 날이다) / 이용 가능해요.
→

4. 보기와 같이 '-다(고) 해서'를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보기 공부하기가 (힘들다) / 포기하면 안 되죠.
→ 운동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1) 영화 티켓이 (비싸다) / 안 볼 수는 없지요.
→
(2) 몸이 많이 (아프다) / 오늘 학교를 결석할 수는 없지요.
→
(3) 이 물건은 좀 (비싸다) / 사지 않을 수는 없지요.
→
(4) 밀린 일이 (많다) /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요.
→
(5) 한국사 교과서가 (무겁다) / 학교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지요.
→

5. 보기와 같이 '-(ㄴ/는)다(고) 할 지라도'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세요.
보기 택시를 (타다) / 할 지라도 이미 늦었어요.
→ 택시를 **탄다**고 **할 지라도** 이미 늦었어요.

(1) 이 환자는 수술을 (받다) / 회복이 불가능해요.
→
(2) 깨진 그릇을 아무리 잘 (붙이다) / 사용 할 수 없어요.
→
(3) 공공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아무리 짧게 (하다) /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
(4) 날씨가 (쌀쌀하다) / 달리기를 해요.
→
(5) 제나는 음악 시디가 (비싸다) / 샀다.
→

읽기 연습 Чтение

※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갯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가)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פות을 휘어 쥐고 있었다.

그 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닥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 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나) 또 약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쪽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중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갈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알아? (다)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황순원(1915-2000)의 소나기 중에서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борьбы с наркомани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мини-турнирами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борьбы с наркомание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а акция "Жизнь без наркот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управлением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т день волонтеры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раздавали прохожи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буклеты о вреде наркомании и последствиях пагубных привычек. В памят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найти советы о том, как противостоять угрозе наркозависимости, мерах профилактики, а также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й досуга и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акции "Жизнь без наркот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ции армрестлин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мини-турниры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13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ямо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от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и секций, действу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каратэ, кудо, капоэйре, армейскому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хапкидо, кендо, панкратиону, кикбоксингу, тхэквондо и гольфу. Мы призываем всех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Жизнь без наркотиков" и сделать выбор в пользу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управления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Нам.

Работ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родители юных горожан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й из восьми молодежных клубов при ЦМИ з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метод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ой и помощью в проведении 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опаганд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дробнее о работе и направлениях клубов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МБУ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회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청소년 민속체육대회 개최

사할린주정부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관리국이 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와 공동으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민속스포츠 종목에 따라 제1회 사할린주 북방소수민족 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참가 연령은 10세부터 17세까지로 유즈노사할린스크주 <스콰르타크>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북방소수민족 학생 80여 명과 학교 소속 야영에서 청소년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통활을 이용한 양궁, 민족 레슬링, 도끼 던지기, 줄다리기 등 민속종목에서 힘을 겨루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조성되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областная спартакиада среди дет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Управлени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провело I спартакиа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дет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ебята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7 лет.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с 22 по 23 июня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спартаки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80 детей из числа КМНС и более 200 ребят из пришкольных лагерей.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стрельбе из традиционного лу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метании топора,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и других видах спорта.

Кроме того, для детей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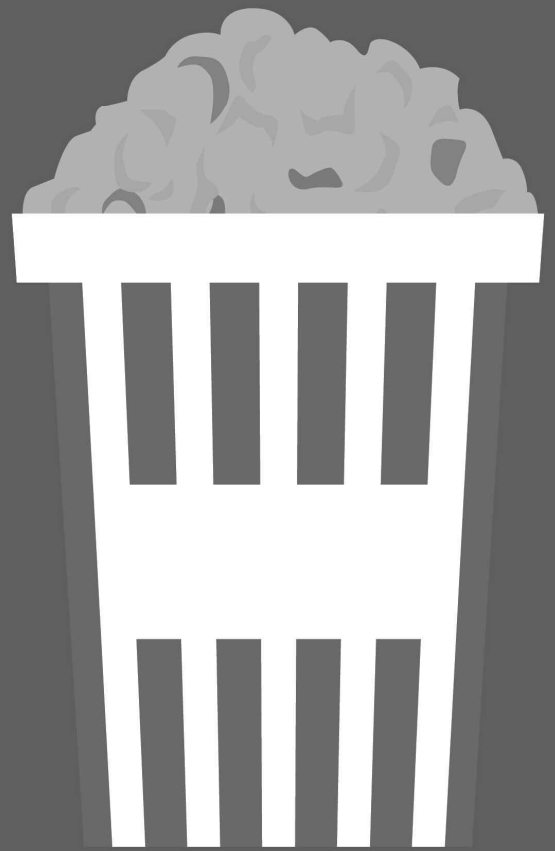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위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